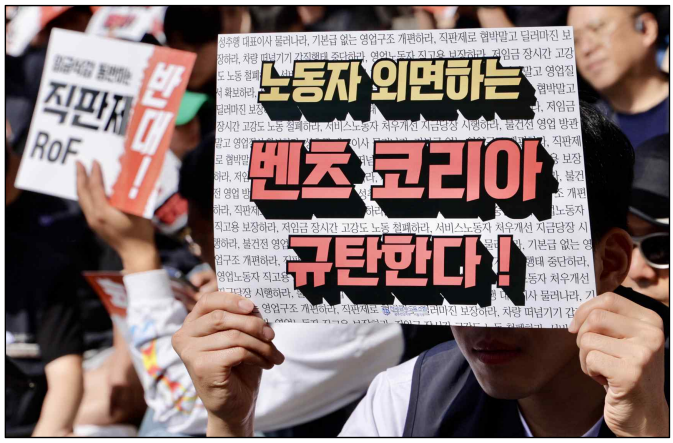
금속투쟁속보 41호

발행일 2025년 9월 22일(월)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벤츠코리아, 노동탄압 방치하고 노동자 쥐어짜기

18일 벤츠코리아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온라인 직접 판매제 반대

한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팔고 고치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서울지부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 앞에서 '벤츠코리아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연 것.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벤츠코리아가 벤츠 딜러사에서 벌어지는 노동 탄압과 고용 불안에 침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벤츠 코리아 11곳 딜러사 중에서 광주 신성자동차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한성자동차·HS효성더클래스·KCC오토 3곳이 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해 있다.

오준호 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 총무부장은 신성자동차 사측의 부당 경영과 무책임한 벤츠코리아를 규탄했다. 오준호 부장은 "사측이 설정한 과한 목표 탓에 40대 팀장이 갓 들어온 20대 막내에게 떠넘기기를 한다. 월말에는 목표를 달성해야 퇴근시키는 예도 있다"라며 "지난해 대표이사 성추행 사건까지 터졌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벤츠 코리아 침묵 속에 대표이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법·제도는 우리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신성자동차는 광주 지역 벤츠 딜러사다. 지난해 1월 신성자동차 대표이사가 술자리에서 직원들을 성추행했다. 같은 해 4월 성추행 사건 해결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사측은 성추행 피해자들을 해고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을 전시장 당직에서 배제했다. 사유도 없이 조합원들을 계약 해지했다.

신성자동차지회는 조합원 표적 해고, 금속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노동위원회는 지회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해지와 당직 배제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부당하게 쫓겨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로 원직 복직해야 하지만, 사측은 3개월 넘게 거부하고 있다.

오준호 부장은 "신성자동차는 성추행 사건에 책임지기는커녕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표적 해고까지 저질렀다. 온갖 협박과 회유로 조합원 탈퇴와 퇴사가 이어졌다. 현재 지회 집행부 전원 해고 상태"라며 "신성자동차는

노조 파괴 중단하고, 해고자들을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 벤츠 코리아 또한 신성자동차 노동 탄압 문제에 더는 방관해선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대관 서울지부 수입자동차지회장은 벤츠 직판제 거부 뜻을 명확히 밝혔다. 지난 4월 벤츠코리아는 온라인 직접 판매제(ROF, Retail of Future)를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다. 라대관 지회장은 "딜러사 마진율은 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에 큰 영향을 준다. 벤츠코리아는 직판제 시행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결국 딜러사 노동자들은 줄어든 마진율에 일자리와 임금을 빼앗기게 될 것" 이라며 "벤츠코리아는 오로지 자신들 이익만 추구하면서 한국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외면한다. 직판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강조했다.

김승겸 수입자동차지회 부지회장도 직판제 반대를 주장하며 단결을 호소했다. 한성자동차 영업직 노동자인 김승겸 부지회장은 "한성자동차 영업 노동자들은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39일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쉽지 않았지만, 금속노조 조끼가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이라는 믿음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했다" 라며 "직판제는 결국 벤츠코리아 배만 불려주게 될 것이다. 금속노조를 믿고 함께 투쟁해 우리 일터를 좋은 일터로 만들자" 라고 말했다.

황성문 수입자동차지회 부지회장(KCC오토)은 벤츠 코리아의 과도한 가격 경쟁 유발을 꼬집었다. 벤츠 코리아는 딜러사들에 매년 상당한 규모의 차량 재고를 떠안긴다. 딜러사들 출혈 경쟁으로 이어진다. 황 부지회장은 "딜러사는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적자를 메우려 한다" 라며 벤츠 코리아에 적정한 마진 보장과 시장 안정화를 촉구했다.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업무를 하는 김지완 수입자동차지회 부지회장은 벤츠 코리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완 부지회장은 "벤츠의 빛나는 삼각별은 노동자들의 자부심이었다. 우리는 모든 작업 과정 하나하나 벤츠코리아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한국 노동자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벤츠코리아에 묻고 싶다. 더는 안된다. 벤츠는 한국 노동자들 외침에 답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인천 현대ISC지회, 현대제철 원청에 노동자 동일 처우·노동권 보장 촉구

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ISC지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자회사 노동자와의 직접 교섭과 동일 처우 이행을 촉구했다.

현대제철이 2021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회사 현대ISC를 설립했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안전·복리후생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정한영 현대ISC지회장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지만 개선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요받는다. 약속했던 동일 처우는 신뢰 훼손으로 돌아왔다" 고 지적했다.

현대ISC지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반영 지침 마련 ▲노동자 추정 원칙과 원청 사용자 책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강화 ▲현대제철 직접 교섭과 동일 처우 이행 ▲국정감사 및 불법파견·차별 점검을 요구했다.